

LaTeX 맛보기 (한국어판)

Jim Hefferon Nova de Hi (옮김)

이 글은 LaTeX을 한번 써볼까 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입문 설명서(튜토리얼)는 아니고, 첫 문서를 작성하는 경험을 바로 해보도록 안내하려 한다. 만약 이 짧은 맛보기 이후에 좀더 알아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면 그때 가서 튜토리얼을 읽어보도록 하자.

이 글은 그저 맛보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 것이 많다. 그리고 이하에서 논의할 주제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 방식만을 제시할 것이다. 예를 들면 첫 소절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 설치에 수많은 방법이 있겠으나 우리는 그 중 한 가지만을 지적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시스템을 완전한 이해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겠지만 그저 몇 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LaTeX이란 게 뭘 할 수 있는 도구인지 대략 알게 한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다.

소프트웨어 설치

LaTeX은 TeX 프로그램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일단 TeX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야 한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만 알아보겠다.

Windows 시스템 컴퓨터라면 [MiKTeX \[9\]](#)을 다운로드하라.¹ GNU/Linux와 같은 Unix-류 시스템이라면 [TeX Live \[12\]](#)를, 맥이라면 [MacTeX \[8\]](#)을 다운로드한다. MacTeX은 TeX Live와 더불어 맥 시스템 전용 추가 프로그램을 설치해준다.

이 세 가지는 파일 크기가 크지만 설치하는 손쉽게 이루어진다(물론 설치지침을 주의깊게 따라야 한다. 특히 Unix-류 시스템에서는 PATH를 직접 바꾸어야 할 수도 있다). 다른 방식이나 필요한 다른 프로그램 등, 설치 관련 복잡한 문제가 없지 않겠지만 여기서는 LaTeX을 한번 써보는 것이 목표이므로 대부분의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로 한다.

그런데 사용 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못한 프로그램을 상당한 자원을 소모하면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부조리해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LaTeX 시스템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서비스인 [overleaf.com \[16\]](#)을 이용할 수 있다. chrome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하여 사이트에 접속하면 에디터와 PDF 뷰어가 나란히 놓인 화면을 제공한다. 이 사이트를 통하여 LaTeX 맛보기를 한다면 에디터에 대한 고민은 잠시 미루어두어도 된다.

[번역자 노트] 이 문단은 역자의 추가

에디터

LaTeX 문서는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지 않는다. 워드 프로세서는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작업, 예를 들면 텍스트의 입력과 배치, 문단 형식, PDF 출력물 제작과 같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러나 TeX 시스템에서 이러한 작업은 별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LaTeX을 위해 편집기(에디터)를 쓴다. 에디터는 컴퓨터의 텍스트 파일을 다루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여러 에디터가 있으며, 그 중에는 LaTeX 문서 작성에 특화된

¹이 글의 인쇄본 독자를 위해 문서 말미에 링크를 적어둔다.

것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작성해보려는 문서는 작고 복잡하지 않은 것이라 어떤 에디터든 상관없다. 몇 가지만 지적해두기로 하자. Windows에는 Notepad가 있다. Unix-류 시스템이나 Mac에는 Emacs가 있다. (에디터에 관한 문제는 9 페이지에서 조금 더 언급한다.)

첫 시도

에디터가 준비되었으면 첫 문서를 작성해보자. `latex-first`라는 이름의 새 디렉터리(시스템에 따라 “폴더”라고 부를 때도 있다)를 만든다. 터미널 창을 열고 이 디렉터리로 이동한다(아마도 `cd latex-first` 같은 명령을 써야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다음, 에디터를 실행한다. `latex-first` 디렉터리에서 `latex-first.tex`이라는 이름의 새 파일을 열고 아래의 텍스트를 한줄씩 쓰여진 그대로(왼쪽 마진에 스페이스가 생기지 않도록) 입력한다.

[번역자 노트] 한국어판에서 \LaTeX 문서에 한글이 등장하도록 수정한 예제를 제시한다.

```
\documentclass{article}
\usepackage{geometry}
\usepackage{fancyhdr}
\usepackage{amsmath,amsthm,amssymb}
\usepackage{graphicx}
\usepackage{hyperref}
\usepackage{kotex}

\begin{document}
Hello world! 안녕하세요!
\end{document}
```

여기 적어넣은 내용 대부분이 반복사용구에 해당한다 — 내가 일상적으로 \LaTeX 파일을 작성할 때 매번 적어넣는 것이다.

[번역자 노트] `kotex`과 한글 몇 글자는 번역본에서 추가

파일을 저장한다. 터미널 창으로 되돌아가서 다음 명령을 내린다.

```
pdflatex latex-first
```

명령이 동작하면 아마 터미널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시작하는 수십 행의 텍스트가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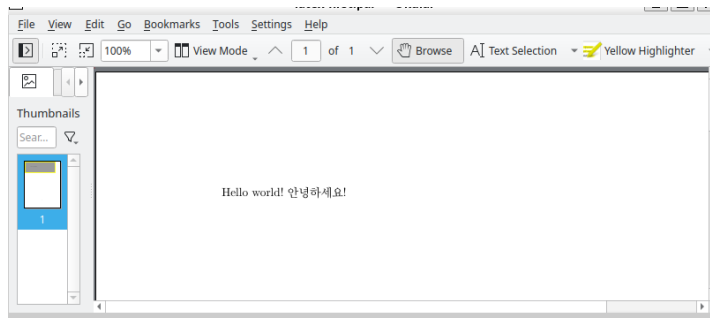
```
This is pdfTeX, Version 3.141592653-2.6-1.40.26 (TeX Live 2024)
restricted \write18 enabled.
entering extended mode
```

(예러 없이 진행되었다면) 끝부분에 다음처럼 나타난다.

```
Output written on latex-first.pdf (1 page, 6195 bytes).
Transcript written on latex-first.log.
```

에러가 발생한 경우라면 이어지는 소절을 보라.

결과 파일인 `latex-first.pdf`를 시스템에서 PDF를 볼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읽을 수 있다.



에러 대처

내용을 틀림없이 한줄씩 입력해넣었는지 확인하라.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는 타자 실수로 문서가 아예 생성되지 않거나 결과가 크게 바뀌거나 한다. 그러므로 오타 입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타 없이 잘 입력된 **latex-first.tex**의 **견본 소스 [5]**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그래도 직접 하나하나 입력해보는 것이 좋다.

실행된 명령이 물음표로 정지하여 사용자 입력을 기다리는 상태일 때 ‘x’와 ‘Enter’ 키를 입력하면 실행이 중지되고 명령행으로 돌아온다.

TeX의 에러 메시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미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에러 메시지를 검색 엔진에 넣어보라. 혹시 운 좋게 적절한 해설과 답을 얻게 될 수도 있다.

한 걸음 더

첫 문서는 너무 짧아서 뭔가 잘못될 여지조차 없다. 그래도 이를 통해 몇 가지 기본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입력한 파일은 텍스트와 명령어가 섞여 있다. **\begin{document}**같은 것이 명령어이고 **TeX**에게 뭔가를 지시하는 것이다. 명령어는 백슬래시(\)로 시작하고 중괄호(curly braces)로 묶은 인자(arguments)를 가질 때도 있다. 이후 보게 되겠지만 대괄호(square brackets)로 묶어 전달하는 것도 가끔 있다.

우리가 작성한 문서는 **article** 클래스에 정의된 여백과 폰트 등의 설정값에 따라 만들어진다. 클래스에 정의된 동작을 일부 보충하거나 수정하기 위하여 **graphicx** 등의 패키지 몇 개를 가져왔다. **graphicx**는 그래픽 파일을 문서에 포함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제 나아가 좀더 길고 복잡한 문서를 만들어 보겠다. **latex-second**라는 이름의 새로운 디렉터리를 만드는 데서 시작하자. 터미널 창을 열고 이 새로운 디렉터리로 이동한다. 에디터 창으로 돌아와서 **latex-second** 디렉터리 안에서 **latex-second.tex** 이라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연다. 그리고 다음을 입력하라.

```
\documentclass{article}
\usepackage{geometry}
\usepackage{fancyhdr}
\usepackage{amsmath,amsthm,amssymb}
\usepackage{graphicx}
\usepackage{hyperref}
\usepackage{lipsum}
\usepackage{kotex}
```

[번역자 노트] \ 부호의 우리말 통용 명칭은 “원빗금”인데, 우리는 그저 ‘백슬래시’라고 부르겠다. 키보드에서 ‘원화 표시’(₩)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키를 입력하여 ‘원화 표시’ 출력을 얻을 수는 없다. **TeX**에서 이 키는 항상 명령어의 시작을 가리키는 데만 쓰인다. (원화 표시 자체를 얻으려면 다른 방법(명령어)을 써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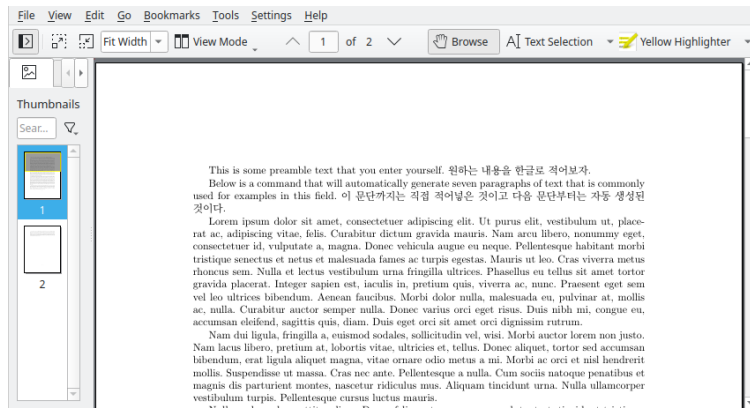
```
\begin{document}
```

This is some preamble text that you enter yourself.
원하는 내용을 한글로 적어보자.

Below is a command that will automatically generate seven paragraphs of text that is commonly used for examples in this field.
이 문단까지는 직접 적어넣은 것이고 다음 문단부터는 자동 생성된 것이다.

```
\lipsum[1-7]
\end{document}
```

이 파일을 저장하고 터미널 창에서 `pdflatex latex-second` 명령을 실행하라. PDF 보기 프로그램에서 다음과 같이 나타날 것이다.



워드 프로세서를 사용해보았다면 \LaTeX 과 워드 프로세서의 차이점을 금방 눈치챈 것일 것이다. 워드 프로세서는 타자 입력을 하는 그 순간에 텍스트를 재배열하여 문단으로 정렬하려 한다. \LaTeX 에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명령어로) 직접 지시하고 나중에 가서야 그게 얼마나 멋지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예를 들면 다음 보기에서 \LaTeX 에게 섹션을 만들라고 지시해보겠다. 그러면 \LaTeX 이 절 표제의 폰트와 간격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에디터를 열고, `latex-second.tex` 파일을 다음처럼 수정하자.

```
\documentclass{article}
\usepackage{geometry}
\usepackage{fancyhdr}
\usepackage{amsmath,amsthm,amssymb}
\usepackage{graphicx}
\usepackage{hyperref}
\usepackage{lipsum}
\usepackage{kotex}

\begin{document}
This is some preamble text that you enter yourself.
원하는 내용을 한글로 적어보자.

\section{Text for the first section}
\lipsum[1]
```

```

\subsection{Text for a subsection of the first section}
\lipsum[2-3]

\subsection{Another subsection of the first section}
\lipsum[4-5]

\section{두 번째 섹션}
\lipsum[6]

\subsection{두 번째 섹션의 첫 서브섹션}
\lipsum[7]
\end{document}

```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절(섹션)과 소절(서브섹션)의 번호가 자동으로 붙었다. 절 표제의 모양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가는 이 문서가 다룰 범위를 넘어선다. 중요한 것은 \LaTeX 시스템이 절의 번호, 폰트, 간격 등을 가장 적절하게 생성해주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더하여, 교차참조(cross-reference)에 대해 알아보겠다. 문서 본문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자. `\begin{document}` 이후만 보인다.

```

\begin{document}
This is some preamble text that you enter yourself.
원하는 내용을 한글로 적어보자.

\section{Text for the first section}
\lipsum[1]

\subsection{Text for a subsection of the first section}
\lipsum[2-3]
\label{labelone}

\subsection{Another subsection of the first section}
\lipsum[4-5]
\label{labeltwo}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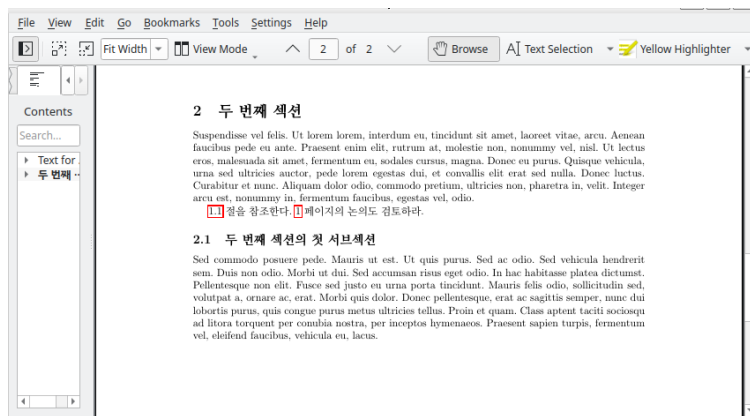
\section{두 번째 섹션}
\lipsum[6]

\ref{labelone} 절을 참조한다.
\pageref{labeltwo} 페이지의 논의도 검토하라.

\subsection{두 번째 섹션의 첫 서브섹션}
\lipsum[7]
\end{document}

```

pdf_lat_ex latex-second를 실행하여 PDF 파일을 보면 우리가 \ref나 \pageref라고 입력한 부분이 물음표로 나타날 것이다. \LaTeX 은 실행 과정에서 라벨을 파일에 적어둔다. 처음 실행할 때는 저장된 것이 없기 때문에 물음표가 나타난다. pdf_lat_ex latex-second 명령을 두번째로 실행하면 저장해 두었던 라벨을 참조하여 물음표가 사라지고 알맞은 번호가 나타난다.



(실제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오타 수정이라든가 하는 이유로 \LaTeX 을 어차피 여러 번 실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명령을 재실행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끝으로 각주, 목차, 참고 문헌을 추가해 보겠다. latex-second.tex을 이룰테면 다음과 같이 수정하라.

```

\documentclass{article}
\usepackage{geometry}
\usepackage{fancyhdr}
\usepackage{amsmath,amsthm,amssymb}
\usepackage{graphicx}
\usepackage{hyperref}
\usepackage{lipsum}
\usepackage{kotex}

\title{테스트 문서}
\author{저자 이름 \url{you@example.com}}
\date{2025년 2월 25일}
\begin{document}
\maketitle

```

```

\tableofcontents
\newpage

This is some preamble text that you enter
yourself.
원하는 내용을 한글로 적어보자.\footnote{각주는 이렇게 붙는다.}\footnote{각주 하나
→ 더.}

\section{Text for the first section}
\lipsum[1]

\subsection{Text for a subsection of the first section}
\lipsum[2-3]
\label{labelone}

\subsection{Another subsection of the first section}
\lipsum[4-5]
\label{labeltwo}

\section{두 번째 섹션}
\lipsum[6]

\ref{labelone} 절~\cite{ConcreteMath}\을 참조한다.
\pageref{labeltwo} 페이지의 논의도 검토하라.

\subsection{두 번째 섹션의 첫 서브섹션}
\lipsum[7]

\begin{thebibliography}{9}
\bibitem{ConcreteMath}
Ronald L. Graham, Donald E. Knuth, and Oren Patashnik,
\textit{Concrete mathematics},
Addison-Wesley, Reading, MA, 1995.
\end{thebibliography}
\end{document}

```

paflatex latex-second를 실행한다. (`\begin{thebibliography}{9}`라 적은 부분에서 9는 \LaTeX 에게 참고 문헌 목록 번호의 자릿수가 몇 개나 필요한지 알려주는 것이다.)

두번째 줄을

```
\usepackage[margin]{geometry}
```

와 같이 고치면, 문서의 여백을 조절할 수 있다. 그리고 `fancyhdr`이 있는 줄을 다음 예와 같이 바꾸면 면주(헤딩)도 바꿀 수 있다.

```

\usepackage{fancyhdr}
\pagestyle{fancy}
\lhead{\today}
\chead{}
\rhead{Test document}
\lfoot{}

```

[번역자 노트] 페이지 상단 또는 하단에 페이지 번호와 장절 제목 등을 표기한 running heading을 우리말로 '면주'라고 한다.

```
\cfoot{\thepage}
\rfoot{}
```

이와 같이 고치고 pdf_latex을 실행해보기 바란다.

수학식 표현

TeX에 관심을 갖는 사람은 대개 수식 때문일 것이다. 아래 수식 예들은 *Concrete Mathematics* [2]에서 가져왔다. (지금부터는 입력 파일 전체를 보여주는 것은 자제하겠다. 스크린샷 대신 출력 자체를 직접 보여주려 한다.)

다음 내용을 bibliography 이전에 적어넣자.

```
There are  $\binom{2n+1}{n}$  sequences with  $n$  occurrences of
 $-1$  and  $n+1$  occurrences of  $+1$ , and Raney's lemma
tells us that exactly  $1/(2n+1)$  of these sequences have all
partial sums positive.
```

결과는 다음과 같이 출력된다.

There are $\binom{2n+1}{n}$ sequences with n occurrences of -1 and $n+1$ occurrences of $+1$, and Raney's lemma tells us that exactly $1/(2n+1)$ of these sequences have all partial sums positive.

다음과 같은 입력은

[번역자 노트] 이 보기는 한글을 섞어 표현하였다.

```
 $C$ 의 값을 계산하는 데는 이중적분에 대해 조금만 생각하면 초급 미적분학으로 충분하다.
\begin{equation*}
C^2 = \int_{-\infty}^{+\infty} e^{-x^2} \mathrm{d}x \int_{-\infty}^{+\infty} e^{-y^2} \mathrm{d}y; .
\end{equation*}
```

출력하면 다음과 같다.

C 의 값을 계산하는 데는 이중적분에 대해 조금만 생각하면 초급 미적분학으로 충분하다.

$$C^2 = \int_{-\infty}^{+\infty} e^{-x^2} \mathrm{d}x \int_{-\infty}^{+\infty} e^{-y^2} \mathrm{d}y .$$

다른 예를 하나 더 보면,

```
다음 점화식을  $n, k \geq 0$ 에 대해 풀어라.
\begin{align*}
Q_{\{n,0\}} &= 1 \\
\quad Q_{\{0,k\}} &= [k=0]; \quad \\
Q_{\{n,k\}} &= Q_{\{n-1,k\}} + Q_{\{n-1,k-1\}} + \binom{n}{k}, \quad \text{for } \\
&\hookrightarrow n, k > 0. \\
\end{align*}
```


다음 점화식을 $n, k \geq 0$ 에 대해 풀어라.

$$Q_{n,0} = 1 \quad Q_{0,k} = [k = 0];$$

$$Q_{n,k} = Q_{n-1,k} + Q_{n-1,k-1} + \binom{n}{k}, \quad \text{for } n, k > 0.$$

소스의 `\usepackage{ams...}` 부분은 미국수학회의 AMS 패키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위의 예제에서 `align*`를 쓸 수 있는 이유가 `amsmath` 패키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AMS 기호도 활용할 수 있다. 간단한 예로 `\mathbb{Z}` 명령으로 \mathbb{Z} 기호를 적을 수 있다. 다음 예에서 긴 화살표를 비롯하여 몇 가지 유용한 명령을 볼 수 있다.

```
Therefore
\begin{equation*}
a \equiv b \pmod{m}
\quad \Longleftrightarrow \quad
a \equiv b \pmod{p^{m_p}} \quad \text{for all } p
\end{equation*}
if the prime factorization of $m$ is $\prod_p p^{m_p}$.
```

결과는 이러하다.

Therefore

$$a \equiv b \pmod{m} \quad \Longleftrightarrow \quad a \equiv b \pmod{p^{m_p}} \quad \text{for all } p$$

if the prime factorization of m is $\prod_p p^{m_p}$.

(\LaTeX 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호에 대해서 [Comprehensive \$\text{\LaTeX}\$ Symbols List](#) [1]라는 문서에 정리되어 있다.)

`amsmath` 패키지를 통하여 정리(theorem)류 환경도 쓸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이 문서가 다루는 범위를 넘어선다.

그 다음에는?

\LaTeX 이 어떤 것인지 감이 오는가? 좀더 배워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튜토리얼 문서를 읽어보아야 한다. [The Not-So-Short Guide to \$\text{\LaTeX}2\epsilon\$](#) [10]라는 문서가 가장 유명하다. 이 문서는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 있으며 한국어 번역본도 CTAN에서 찾을 수 있다. 『 $\text{\LaTeX}2\epsilon$ 입문』 [11]. 이밖에 [\$\text{\LaTeX}\$ Document Pointer](#) [7]에 더 많은 참고 문서가 열거되어 있다. 온라인 사이트인 [Learn \$\text{\LaTeX}\$](#) [18]은 (한국어 번역이 없지만) \LaTeX 입문자에게 친절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다.

[번역자 노트] Learn \LaTeX 언급은 역자

\LaTeX 이란 게 너무 생소해서 이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궁금하여 알아보고자 한다면 [Why \$\text{\TeX}\$?](#) [15]이라는 글을 한번 읽어보라.

실제로 \LaTeX 문서 생활을 하게 되면 좋은 편집 프로그램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필수이다. 특히 에디터에 출력물 미리보기, 철자검사기 등이 통합되어 있고 이것이 \LaTeX 에서 잘 동작하는 에디터를 쓰는 사람도 많다. 주변의 \LaTeX 을 잘 아는 사용자에게 물어보거나 인터넷 상의 포럼 등에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다. 예컨대 [\$\text{\TeX}\$ Stack Exchange](#) [4]같은 토론 포럼은 도움이 된다.

[번역자 노트] 원문에는 usenet 주소를 소개하고 있으나 역자가 \TeX Stack Exchange로 시대에 맞게 바꾸었다.

(에디터에 관해 몇 마디 추가한다. 필자는 `emacs`를 `AUCTeX` 애드온과 함께 쓰고 있다. 맥에서는 `TEX Shop` [13]을 쓰는 사람이 많다. 단순함을 목표로 하여 `TEX` 사용자 그룹이 개발한 크로스 플랫폼 에디터 `TEXworks` [14]도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Microsoft VS Code라는 에디터를 즐겨 쓴다. `LATEX` 문서 작성을 위한 [번역자 노트] 이 문단은 역자의 추가 애드온 확장이 제공되므로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또는 크로스 플랫폼 에디터인 `TEXStudio`를 살펴보는 것도 좋다. 이것은 `LATEX` 전용 에디터인데 다양한 기능 단추와 내장 PDF 뷰어를 갖추고 있다.

한글 `LATEX` 문서에 관한 역자의 사족

이 한국어 번역본은 `oblivoir` 클래스를 적용하여 `XYLATEX`으로 컴파일한다. 이 문서 내의 예제들에는

```
\usepackage{kotex}
```

을 추가하였고 `pdflatex`으로 컴파일하라는 지시를 그대로 살렸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어 문서를 만드는 데 있어 KTUG의 권고는 `xelatex` 또는 `lualatex` 엔진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폰트 문제뿐 아니라 유니코드를 적절하게 다루는 것이 한국어/한글에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제들은 그대로 `xelatex(lualatex)`으로 컴파일해도 잘 동작할 것이다. 폰트 설정 등에 대해 궁금하다면 `KTUG` [17]에 문의하거나 한국어 패키지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이 문서의 저자는 자신의 이름을 `Hef{}feron`이라고 적고 있는데 `ff`리거처가 적용되지 않게 하기 위함일 것이다. `XYLATEX`에서는 이 `{}` 구분이 동작하지 않으므로 `lshort-korean`에서 권고하는 대로 `Hef\mbox{}feron`으로 적어야 한다.

참고 자료 목록

- [1] <https://mirror.ctan.org/info/symbols/comprehensive/symbols-letter.pdf>, *Comprehensive L^AT_EX Symbols List*, Scott Pakin, 2008.
- [2] *Concrete Mathematics*, Ronald L. Graham, Donald E. Knuth, and Oren Patashnik, Addison-Wesley, Reading, MA, 1995.
- [3] <https://groups.google.com/group/comp.text.tex/topics?gvc=2>, *comp.text.tex usenet group*, group authorship, 2009.
- [4] <https://tex.stackexchange.com/>, *T_EX Stack Exchange*, online forum.
- [5] <https://mirror.ctan.org/info/first-latex-doc/>, *Getting something out of L^AT_EX* (source for this document), Jim Hefferon, 2009.
- [6] <https://www.tug.org.in/tutorials.html>, *Indian T_EX Users Group's tutorial*, Indian T_EX Users Group, 2003.
- [7] <https://mirror.ctan.org/info/latex-doc-ptr/>, *L^AT_EX Document Pointer*, Jim Hefferon, others, 2009.
- [8] <https://www.tug.org/mactex/>, *MacT_EX*, Gerben Wierda, Jerome Laurens, Richard Koch, Herb Schulz, Karl Berry, others.
- [9] <https://www.miktex.org>, *MiK_TE_X*, Christian Schenk, 2009.

- [10] <https://mirror.ctan.org/info/lshort>, *The Not-So-Short Guide to L^AT_EX2_ε*, Scott Pakin, 2008.
- [11] <https://mirror.ctan.org/info/lshort/korean>, L^AT_EX 2_ε 입문, 김강수·조인성 옮김. 2025.
- [12] <https://www.tug.org/texlive/>, T_EX Live, Sebastian Rahtz, Karl Berry, others.
- [13] <https://www.uoregon.edu/~koch/texshop/>, T_EX Shop, Richard Koch, 2009.
- [14] <https://www.tug.org/texworks/>, T_EXworks, Jonathan Kew, 2009.
- [15] <https://www.tug.org/TUGboat/Articles/tb22-1-2/tb70heff.pdf>, Why T_EX?, Jim Hefferon, *TUGBoat*, vol 22 no 1/2, 2001.
- [16] <https://overleaf.com>, Overleaf, Online L^AT_EX Service.
- [17] <http://www.ktug.org>, KTUG, 한글 T_EX 사용자 그룹.
- [18] <https://www.learnlatex.org>, Learn L^AT_EX, Learn L^AT_EX.

저자

Jim Hefferon
 Saint Michael's College
 July 6, 2009
ftpmaint@tug.ctan.org